

제 12장

정서발달

(Emotional Development)

차 례

1. 정서의 정의와 분류?
2. 정서표현에 대한 이해의 발달
 - 1) 얼굴표정의 이해의 발달
 - 2) 타인의 정서표현을 통한 세상의 이해의 발달
 - 3) 정서표현의 원인에 대한 이해의 발달
3. 정서의 표출에 대한 발달
 - 1) 울음
 - 2) 미소
 - 3) 공포
5. 정서와 상호작용하는 개념으로써의 '기질'
 - 1) 기질이란?
 - 2) 기질의 세가지 형태
 - 2) 기질과 관련된 이슈들

1. 정서 (Emotion)의 정의와 분류

- 정서란?

심리적인 각성, 의식적인 경험, 행동적 표현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느낌 또는 감정

- 정서의 분류

- 1차 정서 (primary emotion)

- 인간과 동물 모두에서 나타나는 정서
- 발달 초기에 나타나는 정서
- 기쁨 / 슬픔 / 혐오 (3개월) 분노 (2-6개월) 놀람 (0-6개월) 공포 (6-8개월)

- 2차 정서 (자아의식 정서: Self-conscious emotion)

- 인지발달에 기인한 정서
- 사회표준과 자신의 행동에 대한 비교가 가능한 나이 이후에 발달
- 공감 / 질투 / 당황 (1.5-2세) 자긍심 / 수치심 / 죄책감 (2.5세)

2. 정서표현에 대한 이해의 발달

- 4-8개월: 얼굴표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 (Bornstein & Lamb, 1992)
- 9개월: 타인의 정서표현을 이용해서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: social referencing, imitation, joint attention
- 18-24개월: 정서표현에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
- 2세 이후: 특정 정서가 나오는 경우와 그 결과를 표현하기 시작 (왜 우는지, 울면 어떻게 되는지..)

2-1. 얼굴표정의 의미와 그 이해 (4-8개월)

- D'Entremeont and Muir (1999): 웃는 얼굴에는 웃는 반응, 슬픈 얼굴엔 슬픈 반응
- 하지만 다음의 경우엔 매우 불안해 함
 - 음성만 들려줬을 경우
 - 얼굴의 위치가 뒤바뀌었을 경우
 - 얼굴과 목소리의 정서가 맞지 않는 경우
 - 전혀 정서반응을 주지 않는 경우

2-2. 유아의 정서행동

- 사회적 참조 (Social referencing)
-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타인의 정서적인 반응을 보고 실마리를 얻는 행동
- 애매한 자극제시 → 엄마를 쳐다봄 → 엄마가 웃는다 → 자극으로 접근
- 9개월 정도에 관찰. 15개월 정도에 최고, 2년 후에는 복잡한 양상으로 바뀜

3-1. 정서의 표출에 대한 발달: 울음

- 첫 번째 울음
 - 정서 표현이라기 보다 반사적 울음
 - 폐에 공기가 차 있을때 반사적으로 나오는 울음
 - http://www.audiosparx.com/sa/play/port_lofi.cfm/sound_iid.4440
- 기본 울음 (basic cry)
 - 리듬감이 있는 울음. 주로 간단한 침묵 (호흡) 후에 나타남
 - 보통 초기에 긴 울음, 그 이후 짧은 울음이 간헐적으로 나타남
 - 울다가 단순 정지가 나타남. 중간에 들이마시는 휘파람 소리
 - 배고픔, 분노 등 기본적인 욕구 및 정서와 관련된 것으로 여겨짐
 - http://www.audiosparx.com/sa/play/port_lofi.cfm/sound_iid.251376
- 고통울음
 - 초기의 긴 울음 없이 갑작스럽게 터뜨리는 울음
 - http://www.audiosparx.com/sa/play/port_lofi.cfm/sound_iid.205834

3-1. 우는 아이와 성인의 반응

- 대부분 부모나 성인은 영아의 울음이 분노에서 비롯된 것인지 고통에서 비롯된 것인지 구분 가능 (Zeskind et al., 1992)
- 자기 아이의 경우 더 정확
- 우는 아이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?
 - Watson (1928): 우는 아이에 반응을 하면 그 행동이 강화된다
→ 울음의 양이 증가하고 아이가 ‘버릇이 없어질 것’ 이라 예상
→ 부모로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주장
→ 미국 내 육아양식에 큰 영향을 끼침
 - Gewirtz (1977): 실제로 부모가 빨리 반응할수록 증가
 - 반론: Ainsworth (1979): 영아의 울음에 빨리 반응하는 부모를 가진 아이일수록 오히려 울음이 감소
- 결론: 현재까지 논쟁 중.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Ainsworth 쪽을 지지하는 연구결과가 많음 (ex. 아시아권 아이들은 전부 버릇이 없나?)

3-2. 미소 (Smile)

- 반사적 미소

- 외적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지 않음.
- 주로 수면 시 발생
- 생후 첫달 정도에 나타나다 사라짐

- 사회적 미소

-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남
- 보통 6-10주 정도에 발생 (Emde et al., 1976)
- 본능적으로 어른들에게 모성본능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무기
- 미소가 많은 아이일수록 좋은 양육을 받을 가능성 높아진다는 연구보고 존재 (비교: 자폐아의 경우)

3-3. 공포 (Fear)

- 물리적 자극에 대한 공포
 - 걷게 되면서 학습한다는 가설이 우세 (Visual Cliff)
- 낯선 사람에 대한 불안 (stranger anxiety)
 - 생후 9개월 경부터 발생
 - 개인차가 다양
 - 12개월까지 높은 편. 이후 감소
 - 영향을 주는 요인
 - 1) 맥락: 자신의 집에서 훨씬 덜 불안해 함
 - 2) 엄마 무릎에 앉아있을 경우 덜함
 - 3) 낯선 성인 > 낯선 아동
 - 4) 미소 짓는 성인 > 가만히 있는 성인

3-3. 공포 (Fear): 분리공포

- 양육자에게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
- 13-15개월에 최고조. 이후 감소
- 초기 분리의 경향: 나이가 어릴수록 초기 분리의 효과가 커짐
 - 어렸을 때 부모와 과도하게 떨어져 키운 아이의 경우 발달장애의 빈도 증가
 - 초기 ‘애착’의 중요성

4-1. 기질

- 개인의 행동스타일과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특정 방법
- 대체로 신생아 시절부터 안정적 (유전)
- 후기 경험에 의해 수정 가능

4-2. 기질의 세가지 형태 (Thomas & Chess, 1991)

- 순한 아이
 - 일반적으로 긍정적
 - 쉽게 새로운 경험에 적응하는 편 (40%)
- 까다로운 아이
 - 일반적으로 부정적
 - 자주 울고 불규칙적
 - 변화에 대체로 느리게 적응 (10%)
- 반응이 느린 아이
 - 낮은 행동수준
 - 다소 부정적이고 낮은 강도의 기분 (15%)
- 나머지 35%는 분류 안됨. 맥락에 의해 강한 영향

4-3. 기질과 관련된 이슈들: 적합성 (goodness of fit)

- 아동의 기질과 아동이 대처해야 할 환경적 요구 사이의 조화
- 뛰어 다니기 좋아하는 아이와 아파트 꼭대기 층에서 사는 것
- 반응이 느린 아이가 매우 활발한 부모와 사는 것

4-3. 기질과 관련된 이슈들: 아동 기질의 안정성

- 4세 때 활동적인 아동은 23세 때 사교적 (Franz, 1996)
- 3-5세 때 순한 기질아가 대체로 성인 시에 더 적응력 높음
- 현재까지 연구는 매우 소수. 개인에 따른 맥락과 경험도 큰 효과

4-3. 기질과 관련된 이슈들: 성과 문화와 기질

- 성에 따른 양육방식은 기질과 상호작용
 - 잘 우는 남아보다 잘 우는 여아에게 더 반응적
- 문화와 기질
 - 활동적인 기질을 가치를 두는 문화에서는 활동적인 아이가 더 많다
- Kagan의 주장
 - 동양이 서양보다 자기억제를 강조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러한 아이가 많은 것은 아니다
 - 오히려 원래 그러한 기질의 사람이 모여 만든 문화이기 때문에 억제적인 가치가 중요시 되는 것이다
 - 왜 서양이 아닌 동양에서 불교와 도교가 번성하였는가?